

Abstract Submission No. : 9031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

Jaeseok Yang
Yonsei University, Korea

국가적 규모의 장기이식 등록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KOTRY)라는 전향적 장기이식 코호트 연구가 2014 년에 시작되었다. 신장, 간, 심장, 폐, 췌장의 5 개 장기에 대한 코호트 연구는 수혜자와 공여자의 기저 임상정보와 이식 장기의 예후와 이식 환자의 합병증에 대한 추적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신장이식 코호트는 이식 직전, 이식 후 6 개월, 이식 후 1 년째, 그리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동시에 환자의 검체도 정기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생체표지자 발굴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4 년부터 2019 년에 걸쳐 총 6,129 명의 신장이식 환자를 수집하였고, 매년 1200 명 이상의 신규 신장이식 환자를 등록시키고 있다. 64.8%가 생체 신장이식, 35.2%가 뇌사자 신장이식이었고, 등록 환자의 평균 연령은 49.4 ± 11.5 세, 남성이 59.7%를 구성하였다. Preemptive 신장이식이 15.0%,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이 17.4%를 차지하였다. 1 년과 5 년 환자 생존율이 각각 98.4%와 95.8%였고, 1 년과 5 년 이식신 생존율은 각각 97.1%와 90.5%였다. 3.8 년의 평균 추적 기간 동안, 조직검사로 확진된 급성 거부반응은 17.0%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공여자의 평균 연령은 47.3 ± 12.9 세, 남성이 52.6%를 차지하였다. 생체 공여자 중에서는 배우자가 가장 흔한 공여자였고, 기증 1 년 후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는 1.09 ± 0.24 mg/dL 이었다. 뇌사 공여자 중에서 확장범주 공여자는 31.2%의 비중이었다.

한국의 국가적 규모의 장기이식 레지스트리인 KOTRY 의 설립은 국내 신장이식 연구의 기반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 연구에도 이바지함으로써, 한국의 신장이식, 나아가 아시아 신장이식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